

영암서 전국어린이바둑왕전, 벚꽃마라톤대회 열린다

체육산업예산 62억 규모, 체육기금 지난해보다 4억↑... 방문-체류-재방문 선순환 마케팅 나서

‘조훈현 전국 어린이 바둑왕전’ ‘영암 벚꽃 마라톤대회’가, 올해 상반기 영암군의 스포츠 관광을 이끈다.

2026년 체육 산업 예산 62억 중 체육 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4억원 늘린 29억8,000만원 규모로 편성하며 스포츠 마케팅 본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전국 최강 김민재·최정만 선수의 영암군민속씨름단, 조훈현 국수와 세계 1위 신진서 기사가 이끄는 마한의심장영암바둑팀을 중심으로 스포츠 강군의 면모를 과시해 오고 있다.

지역 대표 스포츠단 선수 등의 명성,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십분 활용해, 스포츠 이벤트로 전국 체육인과 가족의 영암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월출산국립공원과 영산강 등 매력 넘치는 천혜의 자원 속에서 머무르며 재방문을 결심하는 ‘방문-체류-재방문’의 선순환 관광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영암군의 목표다.

먼저, 영암군은 2/28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제1회 조훈현 배 전국 어린이 바둑왕전’을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 기사와 가족 등 바둑 관계자들이 조훈현 국수의 고향에서 바둑으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다.

각종 어린이 바둑대회가 가족 동반 방문으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해, 영암군은 대회가 관광·숙박·외식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에서 영암군은 총사업비 3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암에 건립 예정인 국제바둑연수원도 홍보에 나선다.

국제바둑연수원은 인공지능 바둑교육원, 국제대국실, 인재교육관 등을 갖춰 국내·외 프로·유소년 선수 연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바둑과 관광을 연결하는 문화 산실로 가꿔 ‘바둑 메카, 영암’을 알릴 구심점으로, 상시 체류의 거점으로 영암군은 국제바둑연수원을 키워가기로 했다.

또한 영암군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장애인의 생활체육 시설 접근성 확보와 이동권 강화 등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배구 전지훈련을 신규 지원하여 씨름, 수영, 배구 등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지훈련의 경우 겨울철 비수기에도 선수단이 장기간 체류하며 훈련과 연습경기가 이어지는 특성상 지역 숙박 및 음식점

에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4/4일에는 월출산국립공원의 경관 아래 펼쳐진 군사면 100리 벚꽃길을 배경으로 ‘영암 벚꽃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 대회는,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의 만개한 벚꽃 속에서 자연과 문화, 관광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체육행사로 꾸민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공동 종별 선수권대회, 전남 서남부 15개 시군 초청 게이츠펠대회 등 전국·도단위 대회가 꾸준히 개최되며 스포츠 도시 영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영암군은 천하장사 씨름대회, 영암 월출산배 축구대회, 생활체육 한마당대회 등 하반기 주요 스포츠대회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활력 회복,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지역사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 영암군은 체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대된 체육 예산을 바탕으로 스포츠 이벤트가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바둑 전용 경기장

- 연면적 : 3,200m²
- 규모 : 지하1, 지상2
- 내용 (지상 1층) : 바둑박물관, 아미 및 프로 대회 경기장 등 (지상 2층) : 특별대국실, 국제대회 경기장, 브리핑룸 등

바둑 연수원(인재교육원)

- 연면적 : 7,800m²
- 규모 : 지하1, 지상3
- 내용 (지상 1층) : 사무실, 대강당, 국가대표 훈련실 등 (지상 2층) : 숙박실(70실), 전지훈련 전용 훈련실 등 (지상 3층) : 숙박실(130실) / 이미지메이킹실 등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46,145	45,000	1,145
부지조성	1,145	-	1,145
연수원	29,390	29,390	-
경기장	15,610	15,610	-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월스트림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치스테이션 전 탁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 발코니 무상
- 중도금 무이자
-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스포츠 메카 강진군, 2026 동계 전지훈련 본격 돌입

스포츠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장기 체류 숙박·음식점·전통시장 등 실질 소비효과

강진군이 2026년 동계 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전지훈련 운영에 돌입했다.

올해 동계 전지훈련에는 축구, 볼링,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사이클 등 6개 종목, 200여 개 팀, 연인원 3만8,0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군에 머물며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 팀별 평균 체류 기간은 약 9일로 집계돼 강진군이 단순 방문형이 아닌 장기 체류형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군은 겨울철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 조건과 함께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축구 전용구장, 천연잔디 구장, 다용도 실내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수영장 등 훈련과 경기에 최적화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종목별 경기장 사용료 면제,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무료 이용 등 선수단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매년 전지훈련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은 종목별 훈련 특성을 고려한 시설 관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선수단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선수단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들의 장기 체류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전

통시장 등 지역 상권 전반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지훈련 유치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전지훈련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전남을 대표하는 전지훈련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강진군은 전지훈련과 전국 대회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암면 학장리 일대에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강진 베이스볼파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야구장 4면을 갖춘 시설을 공공 스포츠 인프라로 전환해 사회인·유소년 야구는 물론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가 가능한 복합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2026년 전라남도 최초의 WK리그 여자프로축구단 ‘강진WFC’를 출범시키며 여자축구 중심지로의 도약에도 나선다. 연고지 이전에 맞춰 경기장과 훈련장, 클럽하우스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연중 상시 훈련 체계를 구축해 전지훈련 수요 확보와 전국 단위 대회, 스토브리그 개최 등 다층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2026년 동계 전지훈련 기간에도 선수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전지훈련 유치부터 프로 스포츠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활력과 군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앞으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전국 최고의 스포츠 전지훈련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